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결단식을 통해 대회 선전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지난 4일 열린 광주시선수단 전국체전 결단식과 7일 열린 전남도선수단 결단식 단체사진.

광주·전남 선수들 “전국체전 메달 향해 더 높이·더 빨리”

11~17일 김해서 개최...광주 1424명·전남 1748명 참가

광주시청, 남자 400m 계주 4연패·정혜림 허들 9연패 도전

제105회 전국체전을 앞둔 광주·전남 선수들이 각오를 다졌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을 열고 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결단식에서는 전남도대표 선수단 훈련 영상 상영, 손정식 사무처장의 참가계획 보고,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의 개식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에 선수 단기를 전달한 뒤 격려사를 통해 “전국

체전 기간 부상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수 대표 선서에서는 전남도체육회 수구팀 조혜승과 목포여상고 배구부 김다은(3년)이 선수들의 마음을 모아 대회에 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전국체전은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남은 지난해 전남 목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던 제104회 전국체전의 흐름을 이어 높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의지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49개 종목 총 1748명(선수 1130명, 임원 618명)이 참가해 메달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특히, 펜싱 최세빈(전남도청), 양궁 남수현(순천시청)과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등 지난 파리를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출전해 다시 한번 열기를 이어 나간다.

또 무안군청 김도, 한국전력 럭비, 순천제일고 배구, 영암군청 씨름 등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대회에서 메달 193개(금 60, 은 59, 동 74)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4위를 기록했었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그동안 세밀한 전력 분석과 우수성적 거양에 필요한 점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등 대회 참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전

국체전의 성공 개최와 함께 상위권 입상의 기운을 이어받아 이번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전했다.

광주선수단은 지난 4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결단식을 통해 체전 출격 준비를 마쳤다.

결단식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선수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행사에서는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응원 영상 상영과 릴레이 응원 메시지 전달식이 진행됐고, 선수단기 수여와 선수 대표 선서 등이 이어졌다.

이날 선서는 광주시체육회 스퀘시팀 김가혜와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가 대표로 맡았다.

광주선수단은 49개 종목에 총 1424명(선수 1081명, 임원 343명)이 나서 종합 순위 10위를 목

표 달린다.

특히 체조 문건영(광주체고), 근대5종 전용태 등이 다수 입상을 예고하고 있다.

문건영은 지난해 대회에서 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전국체전 역사상 첫 대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광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400m 계주 4연패와 ‘허들 여제’ 정혜림의 9연패에 도전한다.

광주는 지난해 대회에서 메달 149개(금 52, 은 39, 동 58)를 획득하며 종합 11위를 기록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성과가 최고의 경기력으로 펼쳐지기를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파리 영광 잇는다...올림픽 메달리스트 40명 전국체전 출전

안세영·김예지·오상욱 등

11일 막을 올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올해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출전한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종합운동장 등 75개 경기장에서 47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선수 1만9000여명, 임원 9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메달리스트 46명 가운데 40명이 출전해 저마다 고장의 명예를 걸고 ‘월드 클래스’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야구·소프트볼과 배드민턴, 태권도는 사전 경기로 진행된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삼성생명)은 9일 경남 밀양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자 일반부 단식전 예선 경기에 부산 대표로 출전한다.

안세영은 8~9월 일본오픈, 코리아오픈에 모두 불참했고,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올림픽 이후 처음 경기에 나온다.

특히 안세영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인터뷰 등을 통해 부상 관리, 대표팀 훈련과 운영 방식, 협회 의사 결정 체계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켜 이번 체전 출전에 남다른 관심이 쏠린다.

역시 사전 경기로 진행된 태권도의 경우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다민(서울시청)이 6일 김해체

육관에서 열린 여자 73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번 체전 일정을 소화한 선수는 태권도 김유진(울산시청)으로 7일 여자 57kg급 결승까지 진출해 체전 금메달에 1승을 남겼다.

양궁 남자 3관왕에 올랐던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은 12일부터 체전 일정을 시작하고, 펜싱 오상욱(대전시청)은 개막일인 11일 경기에 나선다.

사격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임실군청)는 13일 메달 사냥을 시작한다.

탁구 신유빈(대한항공), 전지희(미래에셋증권), 유도 김민중(양평군청)과 안바울(남양주시청) 등은 이번 체전에 나오지 않는다. /연합뉴스



오는 16~17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2024 전국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겸 제14회 어울림한마당'이 열린다. 대전에서 열린 지난 2023년 대회 경기 모습.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공>

‘12년 만 올림픽 수영 메달’ 김우민 “LA서 더 높이”

동메달 포상금 1000만원...경영 월드컵 2차 대회 출전식도 열려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딴 김우민(23·강원도청)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대한수영연맹은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파리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포상식을 열었다.

김우민은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50으로 3위에 올랐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탄생한 올림픽 수영 한국인 메달리스트다.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현재까지 박태환과 김우민, 단 두 명뿐이다.

박태환은 2008 베이징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과 자유형 200m 은메달, 2012 런던 대회 자유형 400m와 200m 은메달을 따냈다.

김우민이 ‘우상’ 박태환의 뒤를 따르면서 한국 수영의 올림픽 메달은 5개(금 1개, 은 3개, 동 1

개)로 늘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김우민은 소속팀 강원도청의 일본 전지훈련에 참여했고, 대한수영연맹은 김우민의 훈련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자 10월에 포상금 수여식을 열었다.

연맹은 김우민에게 포상금 1000만원과 함께 고급 손목시계도 안겼다.

김우민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맹에 액자를 선물했다.

김우민은 “많은 분의 도움 속에 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려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수영연맹은 파리 올림픽 수영 선수단을 이끈 이정훈 총감독 등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스위밍 지도자와 트레이너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이날 국제수영연맹 경영 월드

컵 2차 대회 출전식도 함께 열었다.

경영 월드컵 2차 대회는 10월 24~26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다.

경영 월드컵은 매년 하반기 대륙별 순회로 개최하는 25m 쇼트코스 대회로 단체전 없이 개인 종목만 평정한다.

올해에는 10월 18~20일 중국 상하이(1차 대회), 10월 24~26일 인천(2차 대회), 10월 31~11월 2일 싱가포르(3차 대회)에서 3개 대회를 연다.

한국에서 국제수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가 열리는 건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5년 만이다.

경영 월드컵은 2005년 대전 시립수영장에서 열렸던 대회 이후 19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김우민, 황선우(이상 강원도청), 이은지(부산고) 등 한국 선수 19명이 경영 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순천서 개최

16~17일 팔마실내체육관

전국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의 장인 ‘2024 전국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겸 제14회 어울림한마당’이 순천에서 열린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16~17일 이틀간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탁구·배드민턴·술람·한궁 등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인 휠체어럭비, 총 6개 정식 종목에 전국 척수장애인선수와 보훈자,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사·도 대항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3·4위 결정전은 열리지 않는다.

사·도 연합팀의 이벤트 경기(술람·한궁)를 통해 지역의 벽을 허물고 화합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 장애인 슬로프 차량 시승, 휠체어 전시 및 수리 서비스, 장애인 취업상담 등 20여개의 장애인 기업들이 참여한 체험부스가 설치된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1시부터 치러지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과 사·도협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대회 시상은 5개의 정식 종목별 1·2위와 공동 3위에게 트로피와 상금·상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전국 척수장애인 체육대회는 척수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